

---

---

## 연산동고분군의 특질과 의미

김영민 / 울산대학교 박물관

---

---

### 목 차

I. 머리말	IV. 출토유물로 본 연산동고분군
II. 연산동고분군의 고고학적 위치	1. 연산동고분군의 외래계 유물
1. 조사 내용	2. 왜계갑주류의 부장의미
2. 조사 성과	3. 연산동고분군의 특질
III. 복천동고분군과의 관계	V. 맺음말
1. 복천동고분군의 묘제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2. 연산동고분군의 묘제	

### I. 머리말

연산동고분군은 부산지역의 대표적인 삼국시대 고층 고분군이다. 황령산(427m) 자락의 북쪽 끝에 위치한 배산의 북쪽 능선을 따라 대형봉분을 갖춘 10여기 정도의 고분이 위치한다. 일찍이 그 존재가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동안 집중적으로 도굴되어 많은 유물들이 반출되었다. 그중 일부는 일본의 소창(小倉)컬렉션을 거쳐 현재 동경박물관(東京博物館)에 소장되어 있다.

일제강점기 이후 방치되었던 연산동고분군에 대한 발굴조사가 진행된 것은 1987년부터이다. 부산시는 학계에 소개된 연산동고분군 관련 자료의 중요성과 그 성격을 밝히기 위한 사업의 일환

으로 부산에 소재한 대학박물관에 발굴조사를 요청하였다. 부산 지역 대학박물관의 협의를 통해 부산여자대학교(현 신라대학교, 이하 신라대)와 부산산업대학교(현 경성대학교, 이하 경성대)박물관에서 조사를 시행하였다.

발굴대상이 된 유구는 도굴의 피해가 가장 심한 것으로 판단된 4호분과 8호분이 선정되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도굴이 극심한 상태에서 진행된 발굴조사였기 때문에 출토유물의 잔존 상태는 대단히 열악하였다. 그나마 유구의 형태와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단초를 얻었다는 점에서 나름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기왕에 전(傳)연산동출토로 알려진 소창(小倉)컬렉션 소장의 대금식판갑과 비견될 만한 갑옷이 확인됨으로서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최근 들어 고분군의 주변에 대한 소규모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와 함께 고분군의 정비와 관련된 봉분조사가 진행되었다. 이를 통하여 봉분의 축조과정과 내부구조가 일부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자료의 축적을 토대로 한 연산동고분군의 성격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면서 연산동고분군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sup>1)</sup> 아울러 주변에 형성된 중소규모의 분묘들이 발굴되면서 연산동고분군의 집단성격을 구명하는데 중요한 자료들이 확보되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최근 조사된 고총고분과 주변의 중소규모 분묘자료를 통해서 연산동고분군 집단의 성격과 함께 복천동고분군과의 관련성에 주목하여 양 고분군의 묘제와 출토유물을 기초로 연산동고분군 세력의 특질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부산대학교박물관, 2013, 『연산동고분군의 의의와 평가』, 국제학술심포지엄 발표 자료.

## II. 연산동고분군의 고고학적 위치

### 1. 조사 내용

일제강점기에 도굴되어 현재 동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대금식판갑과 철제관모 등이 연산동고분군에서 반출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식 발굴조사된 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출토정황은 알 수가 없다.<sup>2)</sup> 그래서 본장에서는 연산동고분군의 발굴조사를 통해서 알려진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본다.

#### 1) 1987년 조사<sup>3)</sup>

신라대박물관과 경성대박물관에서 실시한 4호분과 8호분에 대한 조사이다. 먼저 신라대박물관에서 조사한 4호분은 봉분높이 216cm, 봉분의 직경이 1,270~1,640cm인 타원형의 원분이다. 풍화암 반을 길이 1,054cm, 폭 370~416cm, 깊이 222~252cm가량 굴착하여 묘광을 구축했다. 그리고 매장주체부인 석곽은 길이 831cm~840cm, 남단벽 182cm, 북단벽 162cm, 높이 172cm로 계측되었다. 석곽은 중간에 활석을 쌓아서 격벽을 설치하여 주곽과 부곽으로 구분하였다. 주곽은 길이 443~455cm, 폭 182~202cm, 부곽은 331~349cm, 폭은 161~170cm이다. 출토유물로 다수의 고배와 발형기대 등의 토기류와 호록, 호록금구, 유자이기 및 철촉 등이 수습되었다. 전체적으로 도굴이 심하여 많은 유물이 반출된 상태였다.

2) 穴澤啄光·馬目順一, 1975, 「南部朝鮮出土の鐵製鋌留甲冑」 『朝鮮學報』 76, 朝鮮學會, 1-34쪽.

3) 申敬澈, 1987, 「釜山 蓮山洞古墳群發掘調查概報」, 『年報』 第10輯, 釜山廣域市立博物館.

安春培, 1991, 『釜山 蓮山洞 4號墳 發掘調查報告』, 釜山女子大學博物館.

경성대박물관에서 조사한 8호분은 분구의 규모가 직경 1,700~2,200cm인 장타원형의 원분이다. 봉분의 주변에는 1~2단의 호석을 돌렸다. 묘광은 길이 1,240cm, 폭 530cm가량을 파고, 중간에 50cm가량의 독을 두고 주곽과 부곽을 별도로 조성하였다. 주곽과 부곽은 별도로 축조하였으나, 개석을 덮으면서 주부곽의 구별 없이 마치 단독분의 형태로 마무리 하였다. 출토유물은 주곽에서 찰갑과 대도, 철촉, 철부 등의 무구류와 금동장 행엽, 등자 등의 마구류가 수습되었고, 부곽에서는 다수의 관갑 편이 검출되었다.<sup>4)</sup>

#### 2) 2000년 조사<sup>5)</sup>

연산터널 공사를 위한 구제발굴이었는데, 2000년에 복천박물관에 의해 실시되었다. 목곽묘 9기와 석곽묘 8기, 횡구식석실묘 1기, 그리고 옹관묘 2기가 조사되었다. 옹관묘 2기는 1호묘와 13호묘에 딸린 배묘로 추정된다. 조사된 곳은 해발 28~37m선상으로, 석곽묘와 목곽묘가 묘역의 구분 없이 혼재하는 양상으로 조성되었다.

#### 3) 2007년 조사<sup>6)</sup>

연산동고분군의 북서쪽에 위치한 공동주택조성예정부지 조사과정에서 발굴이 시행되었다. 우리문화재연구원이 2007년 조사한

---

4) 8호분에 대한 보고서는 현재 경성대박물관에 의해서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다. 일부 유물은 실견하였으나 보고서가 발간되면 세부적인 자료들의 검토를 통해 보다 많은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5) 福泉博物館, 2003, 『釜山蓮山洞遺蹟』, 福泉博物館 學術研究叢書 第15輯.

6) 우리문화재연구원, 2009, 『부산 연제구 연산동 공동주택 예정부지 내 유적』, 우리문화재연구원 학술조사보고 14책.

대상지는 고분군의 경사면이 끝나는 지점으로 경사면과 평지가 만나는 구릉의 말단부에 해당한다.

유구는 목곽묘 8기, 석곽묘 7기, 옹관묘 2기가 확인되었다. 2000년에 복천박물관에서 조사한 내용에 비해 시기적으로 다소 떨어지는데 출토유물로 볼 때 6세기 전엽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석곽묘는 길이 150~310cm, 폭이 55~80cm가량으로 소형분묘들이 분포하고 있었다.

#### 4) 2009년 조사기

연산동고분군내의 고총고분의 현황조사와 연제구체육공원조성부지에 대한 조사가 2009년 12월부터 약 1년간에 걸쳐 부산박물관에 의해 실시되었다. 조사과정에서 기존의 10기의 고총고분 이외에 고총고분 사이에서 추가로 8기의 봉분이 확인되어 모두 18기의 고총고분이 분포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아울러 체육공원부지에서는 청동기시대의 집석유구를 비롯하여 수혈식석곽묘, 목곽묘, 횡구식석곽묘, 옹관묘 등 삼국시대의 분묘 84기, 야외취사시설 등이 조사되었다. 그리고 고려·조선묘 94기를 포함한 조선시대 건물지도 분포하고 있는 것이 알려졌다. 고총고분과 거의 동시기의 삼국시대 분묘들이 밀집해서 분포하는데 연산동고분군의 남쪽 경계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7) 釜山博物館 2012, 『蓮山洞古墳群-연제체육공원 조성부지 조사』, 부산박물관 학술연구총서 제34집.  
釜山博物館 2012, 『蓮山洞古墳群-고총고분 기초조사』, 부산박물관 학술연구총서 제34집.



5) 2011년 조사<sup>8)</sup>

2009년에 이어 두 번째 조사로 M3호분의 정밀조사가 2011년 7월부터 약 1년여에 걸쳐 진행되었다. 특히 M3호분의 봉분을 축조하는 과정을 정밀하게 조사하여 고총고분 발굴조사의 시금석을 세운 의미 있는 조사였다. 봉분의 구획과 작업로 및 점토피 성토, 봉분 제사, 석곽의 밀봉, 개석 적치 기술, 벽체 내면의 점토 미장, 목곽의 존재 등 중요한 내용들이 밝혀지게 되었다.

매장주체부는 주부곽으로 구분되는데 묘광은 전체길이 1,900cm, 폭 600cm이며, 석곽내측은 약 1,300cm, 폭은 200cm가량 된다. 개석은 주부곽을 구분하여 덮었는데 각 7~8매를 사용하여 전체적으로 15매를 덮었다. 석곽의 주변으로는 호석이 장타원형으로 둘러져 있었다.

출토유물은 전체적으로 도굴되었지만 금동관, 찰갑(2벌), 만곡종장판주(2벌), 삼각판혁철판갑, 충각부주, 팔가리개 등의 무구류와 마주, 마갑, 행엽, 재갈 등의 마구류, 고배, 장경호, 유개연질옹, 발형기대 등의 토기류가 부장되었던 것이 밝혀졌다.<sup>9)</sup>

다만 도굴이 극심하여 전체적인 부장 양상의 파악은 곤란하였다. 하지만 연산동고분군의 고총고분에 대한 의미 있는 조사가 진행되어 부산의 고대사 연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계기가 되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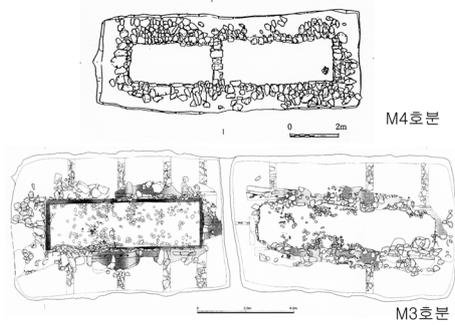
8)釜山博物館 2014, 『蓮山洞 M3號墳-연산동 고총고분군 2차 조사』, 부산박물관 학술연구총서 제41집.

釜山博物館 2014, 『蓮山洞 高塚古墳群 周邊 遺構-연산동 고총고분군 2차 조사』, 부산박물관 학술연구총서 제42집.

9)홍보식, 2013, 「蓮山洞古墳群의 調査 成果와 高塚古墳 築造 技術」, 『연산동고분군의 의의와 평가』, 국제학술심포지엄 발표자료.

6) 2012년 조사<sup>10)</sup>

2012년 10월부터 M7, M10호분에 대한 매장주체부 조사가 이어졌다. 연산동고분군의 정비·복원과정에서 고분의 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매장주체부의 정밀조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먼저 M7호분의 매장주체부는 석곽의 중간에 격벽시설을 가지는 동혈 주부곽식의 석곽묘임이 확인되었다. 석곽의 내부 규모는 길이 820cm, 높이 130cm, 주곽의 길이는 420cm, 부곽은 370cm이다. 전체적으로 도굴되어 유구의 상면에서 확인된 유

<그림 2> 연산동고분군 매장주체부

물은 전혀 없으며, 교란토에서 고배 편들이 일부 수습되었다.

M10호분은 단관식의 수혈식석곽묘로 규모는 길이 990cm, 너비 170cm가량이다. 도굴이 이루어졌으나 벽체에 가까운 부분에서 일부 유물이 확인되었다. 고배와 기대 등의 토기류와 재갈과 등자를 비롯한 마구류, 그리고 갑주류를 비롯하여 철촉, 철모 등의 무기류, 곡옥와 유리제 구슬 등 장신구류 등이 출토되었다.

2. 조사 성과

연산동고분군에서 조사된 삼국시대의 유구는 고총고분의 매장주체부와 주변지역에서 확인된 수혈식석곽묘와 목곽묘 등으로

10) 부산박물관, 2013.01, 『연산동고분군 제3차 발굴조사 약식 보고-연산동고분군 정비 복원 및 공원화 사업 부지-』

구분해 볼 수 있다<sup>11)</sup>).

### 1) 고총고분의 매장주체부

고총고분의 외형은 호석을 통해 보인데 매장주체부의 길이방향을 따라 타원형으로 축조되었다. 그리고 매장주체부는 묘광을 굴착하여 석곽을 돌리고, 그 위에 개석을 올린 형태로 지하식 구조임이 확인되었다. 다만 매장주체부는 동혈 주부곽식인 M4, M7호분은 석제 격벽을 사용하여 주부곽을 구분하였다. M10호분은 내부에 별도의 격벽시설은 없지만 피장자를 위한 주곽에는 바닥에 돌을 깔아서 유물부장을 위한 부곽과 구별했다.

따라서 엄밀히 따지면 M10호분은 동혈 주부곽식으로 볼 수 있다. M3호는 주부곽이 완전히 분리된 이혈 주부곽식인데 주곽과 부곽을 모두 석곽으로 축조하고 개석도 주부곽을 별도로 분리하여 덮었다. 반면에 M8호는 매장주체부는 생토격벽을 두어 주부곽이 분리되었으나, 개석을 연속해서 덮어서 마치 단곽식의 외형을 보이는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이 고총고분들의 매장주체부는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음이 주목된다. 하지만 지하식의 수혈식석곽이라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 2) 석곽묘와 목곽묘

고총고분의 경사지 주변에서 확인된 유구들은 300cm전후의 석곽묘와 목곽묘들이 대부분이다. 석곽묘와 목곽묘가 혼재해 있는데 시기상으로 5세기 후엽에서 6세기 전엽에 해당한다. 석곽묘는 시상석이 깔린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별되며, 다시 석곽을

11) 2011년에 조사된 M3호분의 봉분축조과정도 연산동고분군 조사 성과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토목공정을 전모를 밝힌 성과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지만 본고에서 다루는 내용과는 다소 거리가 있으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정연하게 쌓아 올린 것과 엉성하게 축조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석곽을 엉성하게 쌓아 올린 석곽묘는 할석을 쌓아 올렸다가 보다는 목곽을 세운 후 묘광과 목곽 사이에 할석을 충전한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목곽으로 볼 수도 있을 듯하다. 석곽묘들은 2기가 나란히 배치된 듯한 느낌을 주는 것들이 다수가 보인다. 이러한 유구배치는 신라권에서 많이 보이는 현상으로 주목된다. 목곽묘는 묘광을 판 후 목곽을 조성한 듯하지만 부장유물의 위치에서 볼 때 별도의 목곽 없이 직장한 것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옹관의 경우는 주로 배묘로 사용되었다.

### 3) 출토유물

연산동고분군에서 조사된 유구는 고총고분 가운데 M3, M4, M7, M8, M10호분 5기와 이들 고총고분을 주변의 100여기에 달하는 수혈식석곽묘와 목곽묘들이다. 출토유물도 이들 고총고분과 주변의 중소형묘와는 질적으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먼저 고총고분의 출토유물은 아직 그 내용이 정확하게 보고되지 않아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다. 특히 도굴이 극심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온전한 유물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한 상태이다. M4호분에서는 고배를 비롯하여 발형기대 등의 유물이 일부 알려져 있다. M3호분에서는 파편상태로 수습되기는 하였지만 금동관을 비롯하여 찰갑과 만곡종장판주, 왜계 갑주인 대금식판갑과 층각부주 등의 무구류, 재갈과 행엽, 안장 등의 마구류 등 최고 등급의 부장품 조합을 확인되었다.

반면 주변지역의 중소형묘에서 출토된 유물은 다수의 토기류를 제외하면 고총고분의 출토품과는 질적으로 비교가 어려운 형편이다. 유구의 규모에서부터 유물의 양적 구성 등에서 확연하게 구별된다. 복천동고분군과 비교해 볼 때 부장유물의 양극화가 뚜

렷하게 나타난다. 이점은 당시의 시대상을 그대로 반영한 현상이 아닌가 추정된다.

현재까지 연산동고분군에 대한 조사내용이 알려진 것은 M3호분과 주변지역에서 확인된 중소형묘의 내용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연산동고분군의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M7호분과 M8호분, M10호분의 내용이 추가로 공개된다면 연산동고분군의 성격규명에 다소나마 활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Ⅲ. 복천동고분군과의 관계

연산동고분군과 복천동고분군과의 관계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제기된 바 있다.<sup>12)</sup> 연산동고분군 이전의 부산지역 수장층 묘역이 복천동고분군이며, 복천동고분군이 포화상태에 도달하면서 수장묘가 연산동고분군으로 옮겨졌다고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이와 관련해서 복천동고분군과 연산동고분군의 묘형의 비교를 통해서 양자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복천동고분군의 묘제

##### 1) 묘제의 변천

복천동고분군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독로국시기의 목관묘에서

12) 申敬澈, 1995, 「三韓·三國·統一新羅時代의 釜山」, 『釜山市史』 1卷, 釜山市史編纂委員會.

김두철, 2003, 「부산지역 고분문화의 추이-가야에서신라로」, 『항도부산』 19.

홍보식, 2013, 「연산동고분군 조사 성과」, 『가야제국의 존재형태와 연산동고분군』, 고산문화재단 제2회 학술세미나, 고산문화재단.

부터 목곽묘를 거쳐 수혈식 석곽묘, 그리고 횡구식 석실(65호분)까지 삼한·삼국시대의 분묘가 연속해서 조영된 부산지역의 대표적인 고분군이다. 금관가야의 주축세력으로 활약했던 4세기를 지난 후, 복천동집단의 수장계보는 21·22호묘-10·11호묘-53호묘로 이어진다. 그 이후 연산동고분군의 고총고분이 조영되기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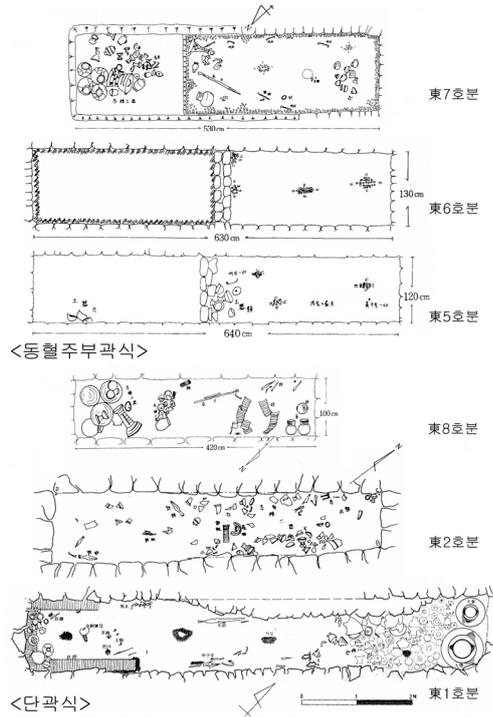
그러면 복천동고분군이 수장층 묘역으로 정착해 가는 일련의 과정을 짚어 보겠다. 먼저 삼한시기의 목관묘에서 목곽묘로 이행하며, 이후 목곽묘는 38호묘단계에서 이혈 주부곽식 목곽묘로 진화한다. 38호묘는 범경주계 유물(유자이기, 곡도자, 꺾수문철모)과 금관가야계 유물(파수부노형토기, 통형동기)이 공존하는 현상을 보이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38호묘 이전의 대형목곽묘인 84호묘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범경주계 요소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처음으로 등장한 범경주계 요소는 단속적인 것이 아니라 복천동고분군이 존속하는 기간내내 일련의 변화과정을 거치면서 유지된다. 그러므로 교류로 인해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집단의 이주의 가능성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때부터 부산지역에는 신라에서 이탈한 세력이 정착하기 시작한다. 아울러 금관가야의 대표적인 유물들을 동시에 부장한 이들은 금관가야와의 연맹관계를 기반으로 세력화하였다.<sup>13)</sup>

38호묘 이후 이혈 주부곽식의 목곽묘가 수장층의 주요 묘제로서 21·22호묘 이전까지 지속하였다. 21·22호묘, 10·11호묘단계에

13) 4세기 이전에도 경주를 포함한 진한지역의 문화요소가 일부 확인되기도 하지만 산발적인 현상을 보이므로 단순한 물적교류로 본다. 그러나 4세기이후의 복천동에 보이는 신라계 요소(유자이기, 꺾수문철모, 곡도자)의 지속적인 대형묘 부장은 단순한 교류차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주와 관련된 현상으로 이해하였다. 이에 관련된 글은 다음의 논고를 바란다. 金榮珉, 2004, 「儀器性 遺物로 본 福泉洞古墳群의 地域性」, 『고대의 남동해안 국가형성』, 釜山福泉博物館.

이어서 53호묘단계까지는 이혈 주부곽식의 석곽묘로 이어진다. 다만 주곽이 기존의 목곽에서 석곽으로 변화하였을 뿐 부곽은



<그림 3> 복천동고분군 5세기 후엽대의 매장주체부

변함없이 목곽을 유지한다. 5세기 이후 주곽의 구조가 목곽에서 석곽으로 변화한 것을 제외하고는 묘제는 대저 큰 변화없이 일관된 양상을 지켜간다. 물론 5세기 이후부터는 부장유물들이 금관가야적인 요소가 점차 희석되면서 신라적인 요소가 가미되는 변화과정이 간취된다. 여기까지가 복천동고분군 수장묘의 변화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부터 나타나는 수혈식 석곽묘들은 연산동고분군의 고총고분과 동시기의 것들로서 연산동고분군으로 수장묘가 이전한 이후에 복천동고분군에 조영된 분묘들이라고 할 것이다.

2) 수혈식 석곽묘와 연산동고분군

복천동고분군에서 확인된 5세기 후엽경의 수혈식 석곽묘는 주부곽의 형태로 볼 때 동혈 주부곽식이라고 할 수 있다. 동일한

석곽내에 주곽과 부곽이 구획되어 있는데, 석곽 내부의 바닥에 자갈돌을 시상으로 사용하여 주곽과 부곽을 구별하거나, 또는 할석을 쌓아서 격벽을 쌓아 올려 주곽과 부곽을 나누기도 하였다. 격벽은 없으나 바닥면에 시상의 유무를 경계로 주곽과 부곽을 달리한 東7, 49호분은 전자에 해당하며, 東5, 東6호분의 경우 할석을 쌓아서 격벽을 만든 격벽식 주부곽으로 후자에 해당한다. 한편 주부곽의 구별없이 전면에 걸쳐서 자갈을 시상으로 깐 東1, 47호분 등이 있는데 이런 유구는 단곽식으로 보아도 좋다.

북천동고분군에서 53호묘 이후 나타나기 시작한 이들 동혈주부곽식 수혈식 석곽묘는 기존의 이혈 주부곽식 석곽묘를 대체하면서 새로운 묘제로서 북천동고분군에 뿌리를 내린다. 이와 동시에 연산동고분군이 새로운 묘역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연산동고분군에는 이때부터 능선부에 고총고분이, 주변경사지에 중소형묘가 조영된다. 그런데 고총고분의 매장주체부는 북천동고분군의 변화과정과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 다만 기존과 달리 장대한 봉분이 피복되는 현상이 새롭게 등장한다. 즉 양 고분군에서 보이는 매장주체부의 유사성에서 양자는 동일한 집단계통으로 보아도 좋다. 또 이것은 연산동고분군이 북천동고분군의 뒤를 이어 지역수장의 묘역이 옮겨 조영된 것으로 이해하는 근거가 된다.

5세기 3/4분기경에 나타난 부산지역의 묘제변화상과 함께 지역수장층 묘역의 이동, 고총고분의 등장, 그리고 북천동고분군과 연산동고분군과의 상관관계 등 주목할 만한 현상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부산지역의 변화상도 주목되지만, 이 무렵에 영남 전역에서 나타나는 고총고분의 유행은 영남권 전체에 중요한 사회변화의 획기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부산지역의 묘제변화와 함께 나타난 일련의 변화들이 수장 묘역의 포화(飽和)로 인한 이전(移轉)으로만 설명될 수는 없다. 즉

5세기 3/4분기의 묘제의 변화, 고총고분의 등장, 양 고분군의 상관관계 등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지 않고, 단순히 새로운 묘역의 필요에 의해 중심묘역의 이전이 이루어졌다는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중요한 변화의 시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 2. 연산동고분군의 묘제

### 1) 고총고분의 묘형

고총고분 가운데 매장주체부의 내부조사가 이루어져 구조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M3, M4, M8호분 정도이다. 아울러 2012년 조사과정에서 매장주체부의 흔적을 파악하여 대략적인 구조를 확인한 M7, M10호분 등이 연산동고분군의 고총고분의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유구들이다.

연산동고분군의 고총고분은 봉분의 면밀한 조사과정을 통하여 당시의 봉분 축조과정이 소상히 밝혀졌다. 그러나 본고에서 비교하고자 하는 복천동고분군에서는 연산동고분군과 같은 높은 봉분의 흔적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양자의 매장주체부를 위주로 비교해보기로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복천동고분군에서 확인된 5세기 후엽의 대형 수혈식 석곽묘는 단곽식과 동혈 주부곽식 석곽묘로 구분된다. 이들 복천동고분군의 묘형은 연산동고분군 고총고분의 매장주체부와 구조상에서 큰 차이가 없다. 즉 복천동고분군에서 5세기 후반대에 채용되어 사용된 수혈식 석곽묘의 구조는 연산동고분군과 대동소이하며, 규격면에서 다소 열세한 정도이다. 다만 복천동고분군에서는 연산동고분군단계의 이혈 주부곽식의 석곽묘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주목된다. 복천동고분군의 수혈식 석곽묘는 주

부곽식을 의도하였지만 대개 동혈 주부곽식으로 조영되고 있다.

이를 통해 본다면 동혈 주부곽식과 이혈 주부곽식이 상호 서열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것이 연산동고분군과 복천동고분군의 서열상의 위치를 표현한 것일 수도 있겠다.<sup>14)</sup>

한편 복천동고분군의 수혈식 석곽묘에서는 봉분의 흔적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지만 봉분이 존재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복천동고분군이 위치한 곳은 연산동고분군과 달리 한국전쟁 이후 피란민이 거주하면서 원지형이 많이 훼손된 곳이기 때문에 봉분이 삭평되어 제대로 남아 있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래서 양 고분군의 대형분들은 모두 고층화되었을 가능성도 있지 않았을까 추정해 본다.

매장주체부는 이전의 묘제와 같이 지하식이지만 이전과 달리 주곽과 부곽을 모두 석곽으로 조성하였다. 그리고 이전의 이혈 주부곽식의 부곽은 별도의 목곽으로 주곽에 비해 묘광이 얇았지만, 주곽과 부곽의 깊이를 거의 같이하고 있음도 변화한 내용이다.<sup>15)</sup> 다만 주부곽의 장단비에서는 이전과 크게 다름이 없고, 대호를 바닥을 파고 세워서 부장하는 것은 이전의 전통이 이어진 것이다. 즉 기왕의 묘제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이 공존하고 있다. 그리고 거의 동시기에 이혈 주부곽식, 동혈 주부곽식, 단곽식이 같이 사용된다는 점도 주목된다. 이들 개개 묘형의 의미는 명확하지 않지만 계층 또는 계보 등 다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

14) 묘형의 차이를 일차적으로 서열화의 시각에서 보았지만 이외에도 가계의 차이라든지 시간상의 변화추이 등 다양한 접근방식이 가능할 것이다.

15) 복천동 21·22호묘와 10·11호묘의 주부곽의 상면은 거의 같은 상태이다. 그런데 53호묘의 주곽은 부곽에 비해 상면이 현저히 낮다. 이러한 주부곽 상면의 차이는 이미 5세기전의 복천동고분군의 목곽묘에서부터 보이던 현상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주부곽의 상면이 같게 변화하는 것은 시간적인 흐름이 아니라 분묘의 조영과정에서 생겨난 현상일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 기존의 얇은 봉분이 고층화한 점인데 영남 전지역에서 거의 동시에 나타난다. 이것을 지역수장층의 정체성을 顯示化시킨 것으로 보고 이때부터 율령체제가 공포되기까지를 “高塚古墳의 時代”라고 부르기도 한다.<sup>16)</sup>

## 2) 주변경사지의 묘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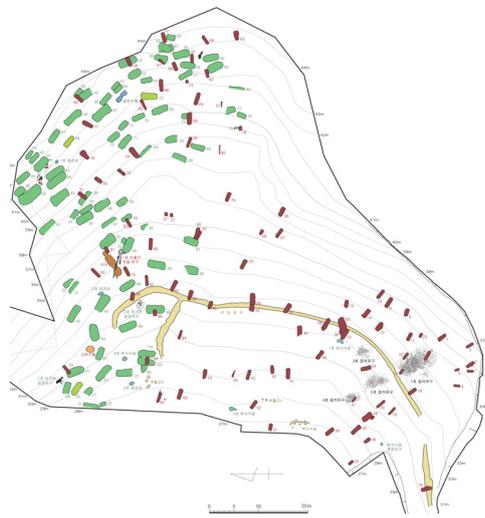
고층고분의 주변에는 중소형급의 석곽묘와 목곽묘가 조성되었다. 전체 연산동고분군 가운데 일부만 조사되어 정확한 양상을 단정하기 어렵지만 조사된 내용을 보면 고층고분과 거의 동시에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석곽묘와 목곽묘가 혼재하는데 유구의 규모와 부장유물의 부장양상에는 대저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5세기이후 석곽묘와 목곽묘가 공존하는 중소형급 고분군을 보면 유구의 배치나, 석곽의 유형에서 신라와 가야지역은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낙동강 동안지역, 즉 신라권의 경우 석곽묘와 목곽묘가 2~4기가 나란히 배치되는 현상이 4세기대의 목곽묘에서부터 확인된다. 특히 호석과 주구로 묘역을 구획한 경우에도 옆으로 나란하게 배치되는데, 봉분의 존재를 상정해 본다면 동일 봉분내에 복수의 매장주체부가 담긴 형태가 된다.

반면 가야지역, 특히 김해지역의 동시기 고분군에서는 개별유구별로 일정하게 거리를 유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봉분의 존재를 가정한다면 단일 매장주체부가 되는 것이다. 이점은 이전의 목곽묘단계에서부터 이어져 온 양 지역 묘제의 전통이 지속된 것이다. 그런데 연산동고분군을 비롯해서 부산지역의 동시기 고분군들은 대부분 신라권의 유구분포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16) 김두철, 2013, 「연산동고분군과 복천동고분군」, 『연산동고분군의 의의와 평가』, 국제학술심포지엄 발표자료

연산동고분군에서 조사된 80여기의 중소형분의 분포유형도 김해지역의 동시기 유구배치와 달리 신라권의 유구배치양상과 닮아 있다. 또 석곽묘가운데는 할석을 정연하게 세워 측벽을 쌓아 올린 예(46호묘 등)도 있지만, 마치 목곽을 세우고 주변에 층전토를 대신해서 할석을 채워 넣은 듯 대단히 엉성한 측벽의 예(24호묘 등)도 있다. 석곽의 측벽이 엉성하게 축조된 예는 신라



<그림 4> 연산동고분군 주변 경사지 유구배치

권에서 많이 보이는 현상이다. 또한 신라권의 석곽에서 자주 보이는 특징은 한쪽 단벽을 마치 우물을 돌리듯 둥글게 처리하여 유물부장공간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연산동고분군 등에서는 이와 같은 신라권의 특징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신라권의 석곽묘와 유사하면서도 다른 점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 부산지역 석곽묘의 특징이다.

연산동고분군을 비롯한 부산지역뿐만 아니라 5세기 3/4분기경에 영남의 전 지역에서 지역적인 특징을 보이는 고총고분과 함께 새롭게 조성되기 시작하는 중소형급의 석곽묘군이 곳곳에서 확인된다. 영남 각지에서 고총고분의 등장함과 동시에 나타나는 중소형급의 석곽묘군의 조성개시라는 현상은 신라와 가야 전체를 아우르는 중대한 변화의 요인이 실재했음을 의미한다.

즉 연산동고분군의 등장은 단순히 수장층 묘역의 포화의 결과

만이 아니라 영남지방 전체에 나타난 황남대총(남분)에서 발현한 고총화와 중소형급 분묘군의 성행이라는 현상이 함께하고 있다. 고총고분이 등장하는 직접적인 동인은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고총이라는 현시적 효과와 함께 시대사조처럼 성행한 석곽묘군의 조성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분명하지 않지만 아마도 이 무렵부터 신분질서의 틀이 정립되기 시작한 결과가 아닐까 추측해본다. 즉 지역집단내에서 점차 계층화 내지 계급화가 진전되면서 분묘의 사용에도 일정한 규범이 갖추어지게 되고, 분묘의 조성도 점차 체계화되어 간 것으로 보고자 한다. 이점은 앞으로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 IV. 출토유물로 본 연산동고분군

##### 1. 연산동고분군의 외래계유물

연산동고분군의 고총고분은 대부분 도굴이 극심하여 출토유물을 살펴보기가 어렵다. 하지만 복천동고분군에서 같은 시기의 양호한 상태의 유구가 다수 조사된 바 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을 통해서 연산동고분군의 유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양 고분군을 동질로 보아도 좋다고 판단됨으로 출토유물의 내용도 굳이 별도로 보아야 할 이유가 없다.<sup>17)</sup>

양 고분군에서 출토된 유물가운데 동1호에서 출토된 출자형

---

17) 다만 연산동고분군에서는 특유의 무개고배와 다양한 문양을 시문한 토기류 등이 보이기도 한다. 이것은 당시 연산동고분군세력만의 독특한 차별의식이 존재한 현상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저에 존재하는 토기문화는 복천동고분군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금동관과 동8호의 삼누환두대도 등은 신라계 유물로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M3호분에서도 금동관 편이 수습되었다. 복천동 11호묘에서 금동관이 발굴된 이래 복천동고분군이나 연산동고분군의 수장급 분묘에서 금동관이 발굴되는 것은 그다지 놀라운 일은 아니다. 금동관과 환두대도 등을 위시한 위신재뿐만 아니라 부장된 토기류들도 대개 신라계가 주를 점한다. 5세기 3/4분기 이후의 양고분군에서 보이는 부장유물은 기본적으로 신라양식권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한편 부산지역이 신라양식권에 포함된 양상을 보이지만 영남 각지의 외래계 유물도 유입되었다. 창녕계, 소가야계 등 토기류가 간헐적으로 보이는데, 이들 유물은 부산지역이 주변지역과 활발히 교류한 증거가 된다. 그 가운데 특히 주목되는 것은 왜계 유물의 존재이다. 영남 각지의 지역에서 유입되는 토기류들은 일반적 교류로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왜계 유물은 그 성격을 달리 보아야한다. 당시의 사실을 전하는 문헌기록을 보면 5세기 이후 신라와 왜를 적대적으로 묘사한 기록이 많이 보인다.<sup>18)</sup>

정황상, 5세기 이후 신라와 왜의 관계는 긴장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아도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계 유물이 부산지역의 지역수장층의 무덤에서 주요 부장품으로 검출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된다. 전연산동으로 알려진 동경박물관에 소장된 대금식갑주류와 동1호의 유공광구호, 동2호의 대금식관갑의 부속구 등을 비롯해서 연산동고분군의 고총고분 조사과정에서 채집된 다수의 왜계 유물은 5세기 3/4분기 이후에도 왜계 유물이 부산지역에 지속적으로 유입되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신라와 연산동고분군 집단과의 관계가 수직적 상하관계로 보기 어려운 증거가 된다.

18) 『三國史記』에는 내물마립간대 이후 지속적으로 왜가 경주인근을 침범해 온 기록이 전해진다.

## 2. 왜계 갑주류의 부장의미

### 1) 가야지역 대금식갑주

가야지역에서 확인된 대금식관갑은 부장유형에 따라 중소형묘에 부장된 경우와 대형분의 부곽 등에 부장된 경우로 나누어볼 수 있다. 먼저 중소형묘에 해당하는 분묘에서 출토된 사례를 보면 복천동 4호, 112호, 가달 4호, 두곡 43, 72호, 옥전 68호 출토품이 있다. 이들 유구는 기존의 편년체계에서 본다면 대개 5세기 중후엽으로 편년되는데 찰갑이나 다른 재지계 갑주와 무관하게 대금식관갑이 부장된 유구들이다.

그리고 대형분에서 대금식관갑이 발견된 사례를 보면 연산동 8호, 옥전 28호, 창녕 교동 3호, 지산동 32호 등이 있다. 이들 대형분에서는 찰갑과 만곡종장관주 등이 기본 갑주로 부장된 상태에서 대금식관갑이 추가로 부장되었다. 이때부터는 찰갑·만곡종장관주를 착장한 지배층과 대금식갑주 등으로 무장한 중간지배층으로 나뉘는 계층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즉 연산동고분군을 비롯해서 가야지역에 부장된 대금식갑주는 중소형분에서 출토된 경우는 실제 사용을 위한 것이지만, 대형분에서 찰갑과 공반된 경우는 무구로서의 기능보다는 부장품으로서의 기능에 방점이 있다고 본다.

위와 같은 현상은 가야의 전 지역에서 공통되게 보인다. 대금식갑주가 신라지역에는 거의 유입되지 않고 가야의 고총고분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음이 주목 된다.<sup>19)</sup> 가야의 지역수장들과 왜의 지방호족과의 교류관계가 비교적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었음

19) 울산의 하삼정유적에서 장방관혁철관갑 1령이 발굴된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조사성과를 보는 한 신라권에서 확인된 유일한 왜계 갑주자료로서 신라와 왜의 관계를 연결지을만한 적극적인 자료로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된다.

이 분명하다. 특히 연산동고분군으로 대표되는 부산지역에도 다수의 대금식판갑을 비롯한 왜계 문물이 확인되는 점에서 상당기간 자율적인 대외교섭권이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 2) 백제지역 대금식갑주

서남해안의 도서지방을 중심으로 확인되는 왜계 갑주는 백제와 왜와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특히 고흥의 안동고분과 야막고분에서는 양호한 상태의 대금식판갑이 검출되었다. 그리고 신안의 배널리 3호에서도 대금식판갑이 출토되었다. 뿐만 아니라 영암 옥야리의 방대형고분(1호 석실)에서도 대금식판갑의 흔적이 확인되었다. 아마 앞으로 대금식판갑의 출토량은 보다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도서지역에서 확인된 대금식판갑을 부장한 유구는 매장주체부가 소형 석곽 내지 석실이지만, 분구를 성토하여 외관상으로 장대한 효과를 노렸다. 매장주체부 주변의 좁석시설과 유구형태로 볼 때 왜계 분묘로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고흥 안동고분에서는 부속구가 완비된 상태의 장방판혁철판갑과 차양주 2개체분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야막고분에서는 부속구가 완비된 삼각판혁철판갑과 충각부주가 양호한 상태로 출토되었다. 배널리 3호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관찰된다. 그런데 이들 대금식판갑들은 일본의 편년안에 기초해 본다면 대부분 古式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장방판혁철판갑과 동일련식의 삼각판혁철판갑 등 대금식판갑의 등장기에 해당하는 것들로서 일본 편년안을 따른다면 4末5初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그런데 안동고분과 같이 병유기법으로 제작된 차양주가 부가된 예에 의해서 5세기 2/4분기로 보는 입장이 많다.<sup>20)</sup> 주목되는 점은 안동고분에서 백제의

금동관모와 식리가 공반된 현상이다. 이것은 서남해안에 倭系 무장이 분포한 정황이 백제중앙의 적극적 동의하에 진행된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왜계 대금식갑주를 보유한 군사력은 백제의 필요성에 의해 왜의 기내정권과의 군사활동의 결과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가야지역에서 보이는 대금식갑주와는 부장의미에서 구별해 보아야 할 것이다.

### 3. 연산동고분군의 특질

연산동고분군에 앞서 부산지역의 지방수장층 묘역이었던 복천동고분군은 4세기를 기점으로 대형목곽묘를 조영하기 시작하면서 금관가야의 유력세력집단으로 등장하였다. 김해의 대성동고분군과 함께 금관가야의 주요구성체로서 5세기 중엽까지 지역수장층의 무덤이 지속적으로 축조되었다. 그런데 복천동고분군이 일찍이 신라세력에 포함되어 금관가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 있다.<sup>20)</sup> 즉 4세기부터 신라가 부산지역을 세력권에 두고 있었다는 견해인데, 이를 인정하면 복천동고분군은 물론이고, 연산동고분군 역시 자연히 신라의 세력에 해당하는 것이다. 4세기 이후 복천동고분군에서 보이는 범신라계 유물에 대해서 필자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sup>22)</sup> 그러므로 복천동고분

20) 박준현, 2013, 「韓半島 出土 帶金式板甲의 編年 研究」, 『嶺南考古學』 66, 嶺南考古學會. 최근 대금식관갑이 초현한 시기를 5세기 2/4분기로 내려보기도 하는 등, 아직도 대금식갑주의 상한연대는 유동적이라고 할 수 있다.

21) 朱甫暉, 1997, 「4~5세기 釜山地域의 政治的 向方」, 『복천동고분군의 재조명』, 부산광역시립복천박물관.

李熙濬, 1998, 「김해 禮安里 유적과 新羅의 낙동강 西岸 진출」, 『韓國考古學報』 39, 韓國考古學會.

22) 金榮珉, 2000, 「有刺利器로 본 4~5세기의 福泉洞古墳群」, 『韓國古代史와 考古學』.

군보다 연산동고분군의 성격에 대해 살펴봄으로서 양고분군의 전반적인 특질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묘제의 변화과정에서 볼 때 5세기 3/4분기의 변화과정은 기왕의 복천동고분군의 묘제변화의 틀 속에서 볼 때 적지 않은 변화로 볼 수 있다. 주부곽식 석곽(부곽은 목곽)묘에서 이혈 주부곽식, 동혈 주부곽식, 단독분으로의 변화는 외견상으로 볼 때 무시하기 힘든 큰 변화이다. 하지만 영남지방에서 거의 동시기에 나타난 고총화라는 급변속에서 파급된 현상이기도 하지만, 외부로부터의 직접적인 영향을 논할만한 근거는 없어 보인다. 오히려 다른 지역의 매장주체부가 지상화 하는 것에 비해 기왕의 복천동고분군에서의 묘제 전통에 충실한 수혈식석곽묘라는 점에서 양자는 계승관계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러므로 복천동고분군에서 연산동고분군으로 묘역이 이동하지만 양자를 동일 세력으로 보는 것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경자년의 고구려군 남정 이후 복천동고분군은 금관가야에서 분리하여 신라화 한다. 복천동 21·22호 이후 10·11호 단계를 거치면서 신라토기양식권으로 포함되어 간다. 그러나 복천동고분군의 무덤에는 가야각지의 지역양식토기들과 함께 왜계 문물들도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음도 유의해야한다. 즉 5세기 이후 금관가야의 중심세력이 약화되면서 부산지역은 신라의 문화권에 포함되지만 지역수장권은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판단된다.<sup>23)</sup> 특히 연산동고분군과 복천동고분군에서 보이는

金榮珉, 2004, 「儀器性 遺物로 본 福泉洞古墳群의 地域性」, 『고대의 남동해안 국가형성』, 釜山福泉博物館.

金榮珉, 2008, 『金官加耶의 考古學的 研究』, 釜山大學校大學院博士學位論文.

23) 대성동고분군이 경자년의 고구려군 남정 이후 수장묘의 조영이 단절되지만 복천동고분군은 연산동고분군으로 이어지는 6세기 초까지 지역수장묘가 지속되는 점에서 알 수 있다.

왜계 유물들은 부산지역이 왜와도 활발히 교류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연산동고분군에서 도굴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전연산동출토 대금식판갑과 연산동 8호분 출토 대금식판갑, 그리고 최근 조사과정에서도 다수의 대금식갑주류가 확인되었다. 그리고 복천동고분군에서도 왜계 유물이 보인다. 동1호에서 출토된 유공광구호와 동2호의 대금식갑주 부속구, 112호의 대금식판갑 등 5세기 이후 왜계 유물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한편 문헌기록에는 신라와 왜가 5세기 이후 지속적으로 긴장관계를 보이고 있음이 주목된다. 신라와 왜의 반목속에서도 부산지역이 왜와의 교류를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지역수장권, 즉 독자적인 대외교섭권이 유지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본다. 왜는 금관가야와의 교역망이 와해된 이후 교역선의 다변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가장 근거리에 위치한 부산·김해지역에도 관계복원을 시도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부산·김해지역과의 교류관계는 왜의 기내정권이 아닌 지방호족세력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금관가야와 왜와의 중앙정권간의 교류관계가 와해된 이후 왜는 주로 백제와 대가야지역과의 교류의 비중이 오히려 높아 간 것으로 보인다.<sup>24)</sup>

5세기 이후 부산지역은 신라의 문화권에 흡수되었고, 정치적으로도 신라중앙으로부터 일정한 제약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수장층의 중심묘역이 계속 유지되고, 또 장대한 고총고분을 조영하고, 활발한 대외 교역 등을 진행한 정치체가 유지되었다는 점은 신라의 지방에 대한 지배방식이 아직은 불안정한 상태였음을 의미한다.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상태의 소위 말하는 간접지배방식의 한계가 들어난 것이다.

24) 5세기 중엽이후 서남해안지역의 왜계 분묘를 비롯한 왜의 흔적이 급증하고, 대가야와 소가야지역에도 왜계 자료가 많이 보이는 것은 왜의 교역 다변화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된 현상이다.

연산동고분군으로 표현된 5세기 이후의 부산지역의 정치체는 신라의 영향력아래에 존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치권과 대외교섭권을 포함한 지역수장권을 보유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복천동고분군에 연이어 부산·김해지역, 즉 기왕의 금관가야지역의 자치권을 보유한 실질적인 지방정치세력이었다. 이들은 신라의 지방지배방식이 관리의 파견을 통한 직접지배방식으로 전환되기 전까지 존속하였다. 그 시기는 아마도 연산동고분군에서 더 이상 고총고분이 조성되지 않는 단계, 대개 율령이 반포된 520년 전후로 보는 것이 보통이다.

## V. 맺음말

이상으로 부산지역의 대표적인 고총고분인 연산동고분군의 조사내용과 성과,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복천동고분군과의 관련성 등을 간략하게 검토해 보았다. 아울러 연산동고분군의 묘제상의 특징과 연산동고분군의 등장시점에 나타난 영남지방의 제현상 등을 살펴봄으로서 삼국시대 부산지역의 역사적 특질에 접근해 보고자 하였다. 본고의 내용을 정리하는 것으로 맺음말에 대신하고자 한다.

먼저 복천동고분군과 연산동고분군은 매장주체부의 구조에서 시간상으로 다소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동질성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출토유물의 내용에서도 양 고분군에서 다소간 차이를 보이기 는 하지만 동질성을 벗어났다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복천동고분군과 연산동고분군은 계승관계에 있는 동질집단의 수장층 묘역으로 본다.

연산동고분군을 비롯해서 영남 각지에서 고총고분과 중소형급

의 석곽묘군이 5세기 3/4분기 경에 유행처럼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복천동고분군에서 연산동고분군으로 수장묘역이 이전되고, 묘형도 변화하는 부산지역의 양상도 이와 같은 영남지방의 묘제와 사회변화상과 연동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영남지방의 큰 변화의 배경은 신분제의 정립, 즉 계층화와 계급화가 진전되면서 점차 분묘의 조성이 체계화되어 가는 과정으로 이해하였다.

그리고 복천동고분군과 연산동고분군에서 출토된 외래계 유물, 특히 왜계 유물에 주목하여 연산동집단이 역동적인 대외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보았다. 왜계 유물은 연산동집단이 자율적인 대외교섭권을 갖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무구류인 대금식갑주류가 확인된다는 점은 신라와 왜와의 갈등구조 속에서도 당시 연산동집단의 상당한 수준의 자율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잘 알다시피 당시 부산을 포함한 금관가야지역은 대부분 신라토기양식권에 속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이 대왜교류가 지속된 것으로 볼 때 신라의 지방지배는 지역의 고총고분이 조성되는 시기까지 원활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으로 볼 때 연산동고분군으로 대표되는 부산지역은 고구려군의 남정 이후, 금관가야의 기세가 약화되면서 점차 신라화하기 시작하였다. 복천동고분군은 21·22호묘-10·11호묘-53호묘로 지역 수장묘가 이어졌고, 이후 연산동고분군의 고총고분이 지속되는 등 지역수장권이 유지되었다. 지역수장권은 지역의 자치권뿐 아니라 대외 교섭권까지를 포함한 것이었다. 연산동고분군에서 고총고분이 조영되는 시기까지 부산지역은 주변지역을 아우르는 지역수장권을 갖춘 지방정치세력으로 존속하였던 것이다.

### 【참고문헌】

- 김두철, 2010, 「棺床과 前期加耶의 墓制」 『韓國考古學報』 75, 韓國考古學會, 126-169쪽
- 김두철, 2013, 「연산동고분군과 복천동고분군」 『연산동고분군의 의의와 평가』 국제학술심포지엄 발표자료, 165-186쪽
- 金榮珉, 2000, 「有刺利器로 본 4~5세기의 福泉洞古墳群」 『韓國古代史와 考古學』 341-365쪽
- 金榮珉, 2004, 「儀器性 遺物로 본 福泉洞古墳群의 地域性」 『고대의 남동해안 국가형성』 釜山福泉博物館, 33-56쪽
- 金榮珉, 2008, 『金官加耶의 考古學的 研究』 釜山大學校大學院博士學位論文
- 박준현, 2013, 「韓半島 出土 帶金式板甲의 編年 研究」 『嶺南考古學』 66, 嶺南考古學會, 66-99쪽.
- 申敬澈, 1995, 「三韓·三國·統一新羅時代의 釜山」 『釜山市史』 1卷, 釜山市史編纂委員會.
- 申敬澈, 1987, 「釜山 蓮山洞古墳群發掘調查概報」 『年報』 第10輯, 釜山廣域市立博物館
- 安春培, 1991, 『釜山 蓮山洞 4號墳 發掘調查報告』 釜山女子大學博物館
- 李熙濬, 1998, 「김해 禮安里 유적과 新羅의 낙동강 西岸 진출」 『韓國考古學報』 39, 韓國考古學會, 125-153쪽.
- 朱甫噉, 1997, 「4~5세기 釜山地域의 政治的 向方」 『복천동고분군의 재조명』 부산광역시립복천박물관, 69-101쪽.
- 홍보식, 2013, 「연산동고분군 조사 성과」 『가야제국의 존재형태와 연산동고분군』 고산문화재단 제2회 학술세미나, 고산문화재단.
- 홍보식, 2013, 「蓮山洞古墳群의 調査 成果와 高塚古墳 築造 技術」 『연산동고분군의 의의와 평가』 국제학술심포지엄 발표자료, 1-26쪽
- 穴澤啄光·馬目順一, 1975, 「南部朝鮮出土의 鐵製鋌留甲冑」 『朝鮮學

- 報』 76, 朝鮮學會, 1-34쪽.
- 福泉博物館, 2003, 『釜山蓮山洞遺蹟』 福泉博物館 學術研究叢書 第15輯
  - 부산대학교박물관, 2013, 『연산동고분군의 의의와 평가』 국제학술심포지엄 발표자료
  - 釜山博物館 2012, 『蓮山洞古墳群-연제체육공원 조성부지 조사』 부산박물관 학술연구총서 제34집
  - 釜山博物館 2012, 『蓮山洞古墳群-고총고분 기초조사』 부산박물관 학술연구총서 제34집
  - 釜山博物館 2014, 『蓮山洞 M3號墳-연산동 고총고분군 2차 조사』 부산박물관 학술연구총서 제41집
  - 釜山博物館 2014, 『蓮山洞 高塚古墳群 周邊 遺構-연산동 고총고분군 2차 조사』 부산박물관 학술연구총서 제42집
  - 우리문화재연구원, 2009, 『부산 연제구 연산동 공동주택 예정부지 내 유적』 우리문화재연구원 학술조사보고 14책

투 고	심 사	완 료
2014.10.31	2014.12.5	2014.12.12

### 【국문초록】

연산동고분군은 부산지역에서는 최대 규모의 봉분을 가진 삼국시대 고분군이다. 일찍부터 복천동고분군과 함께 주목받아온 수장급 묘역이었다. 최근 봉분에 대한 조사와 함께 발굴조사가 진행되어 그 면모가 알려지게 되었다.

연산동고분군을 비롯해서 영남 각지에서 고총고분과 중소형급의 석곽묘군이 5세기 3/4분기 경에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영남 지방의 큰 변화의 배경은 신분제의 정립, 즉 계층화와 계급화가 진전되면서 점차 분묘의 조성이 체계화되어 가는 과정으로 이해하였다.

복천동고분군과 연산동고분군에서 출토된 외래계 유물, 특히 왜계 유물에 주목하여 연산동집단이 역동적인 대외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보았다. 왜계 유물은 연산동집단이 자율적인 대외 교섭권을 갖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연산동고분군에서 고총고분이 조영되는 시기까지 부산지역은 주변지역을 아우르는 지역수장권을 갖춘 지방정치세력으로 존속하였다.

**핵심주제어** : 연산동고분군, 복천동고분군, 고총고분, 삼국시대, 왜계 유물, 신분제, 지역수장권,

**【Abstract】**

---

---

**The Property And Meaning of Yeonsan-dong Tombs**

Kim, Young-min / University of Ulsan Museum

---

---

Yeonsandong Tombs which have biggest scale of mounds in Busan region are acknowledged as the ancient tombs of Three Kingdoms Era. Those tombs are the graveyards of head of tribal, and were attracted attentions of researchers from a hundred year ago, as Bokcheondong Tombs which located in Busan region. With the latest examination of the diverse burial mounds, the investigation and excavation have been carried on and identified the factual meaning those tumulus have.

The Tumulus and stone lined tomb of small and mid-sized were often newly appeared from a third quarter of the 5th century as the Yeonsandong Tombs, in Youngnam region. The background of big change of the burial customs in Youngnam region means the establishment of the caste system, and means that establishments of tombs were systematized with the progressing of stratification and classing in ancient tribes.

The foreign artifacts, especially Japanese artifacts which were excavated in Yeonsandong Tombs shows that Yeonsandong group had developed the dynamic foreign activity and trading relationship. The Japanese artifacts were recognized that Yeonsandong group had autonomous foreign bargaining rights.

As the Tumulus of Yeonsandong Tombs had been build as the above mentioned, Busan had continued to exist as the head tribe

32 / 港都釜山 第31號

of the local political forces, with the control of the head that covers the area surrounding areas in Pusan Area.

**Key words** : Yeonsandong Tombs. Bokcheondong Tombs. Tumulus. Three Kingdoms Period. Japanese artifacts. The caste system.